

# 브라질 기준금리 인하 통해 경기 부양 노력

김효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구미유라시아본부 미주팀 연구원 (✉ hekim@kiep.go.kr)

## 주요내용

- ▶ 지난 4월 13일 브라질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12.25%에서 11.25%로 1%p 인하
- ▶ 경기 부양의 필요성과 물가 안정이 지속적인 금리 인하의 배경
- ▶ 2017년에는 현재의 확장적 통화정책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나, 금리인하가 경기부양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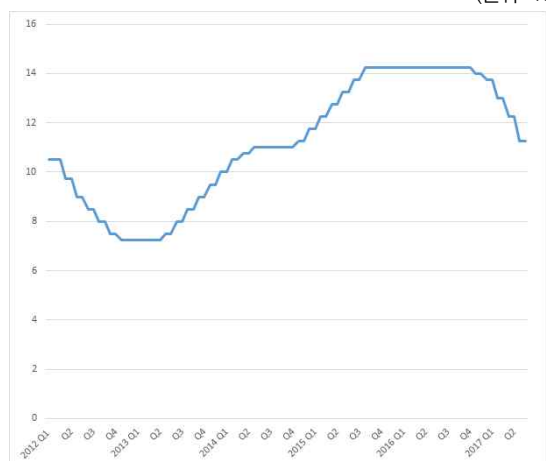
## 1. 이슈 현황

▶ 지난 4월 13일 브라질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12.25%에서 11.25%로 1%p 인하

- 브라질은 미국의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, 이미 2016년 10월부터 총 네 차례 기준금리를 인하한 바 있음.
  - 브라질 중앙은행은 경기 부양을 위해 기준금리를 2012년 말 역대 최저 수준인 7.25%까지 인하했으나, 2013년 이후 해알화 가치하락으로 인한 물가상승 압력 및 자본 유출에 대응하고자 지속적인 금리인상을 단행한 바 있음.
  - 금 번의 인하 폭은 2009년 6월 이후 가장 큰 것으로, 브라질 중앙은행이 금리인하에 속도를 내고 있음을 보여줌.

그림 1. 브라질 기준 금리(2012~2017)

(단위: %)



자료원: 브라질 중앙은행(BCB)

## 2. 배경과 전망

### ▶ 경기 부양의 필요성과 물가 안정이 지속적인 금리 인하의 배경

- 브라질은 최근 몇 년간 최악의 경기 부진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가 물가를 자극할 것을 우려해 금리를 인하하지 못했으나 최근 물가상승률이 안정화되면서 이자율 조정을 가속화하고 있음.
  - 최근 물가 하락은 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 부진과 식료품 가격 하락 및 경상수지 개선으로 인한 해알화 환율 안정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.
- 브라질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소비와 투자를 활성화하는 반면, 재정 정상화를 위해 정부지출을 축소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음.
  - 테메르 대통령은 집권 후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 인하를 단행하고, 재정적자 축소를 위해 정부지출을 동결하고 연금개혁을 추진함.

그림 2. 브라질 GDP 성장률(2014-2017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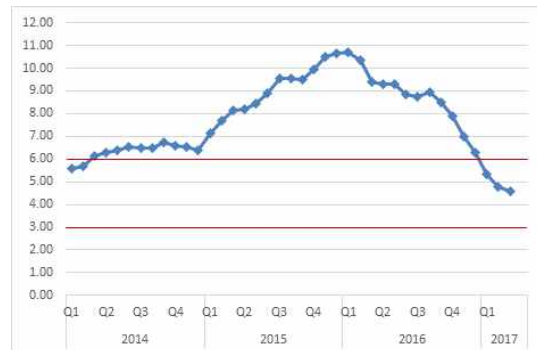
(단위: %)



자료원: 브라질 지리통계청(IBGE)

그림 3. 브라질 물가상승률 (2014-2017)

(단위: %)



주: 브라질 중앙은행은 4.5% 물가목표치를 기준으로  $\pm 1.5\%p$ 의 상하한을 두고 있음.

자료원: 브라질 지리통계청(IBGE)

### ▶ 2017년에는 현재의 확장적 통화정책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나, 금리인하가 경기부양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

- 5월 개최 예정인 통화정책회의에서 1%p 또는 그 이상의 폭으로 금리를 추가 인하할 것으로 예상된다.
  - 통화정책위원회(COPOM)는 물가상승률을 2017년 4.1%(2월 전망 대비 1%p 하향), 2018년 4.5%로 전망하며, 이는 정부의 목표치( $4.5 \pm 1.5\%p$ ) 이하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의 여력이 있음.
- 재정개혁으로 브라질 경제의 신뢰도가 회복되면서 투자가 증가해 경기가 개선되고, 금리인하가 소

비 진작 및 투자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.

- 브라질 은행은 개인 대출이나 신용카드에 대해 높은 이자율을 부과하고 있으나, 브라질 최대 은행인 Itau Unibanco가 개인대출 및 영세사업자 대출에도 금리인하를 반영할 것이라고 밝힘.

□ 그러나 높은 가계 및 기업부채와 정치적 불안정 등으로 금리 인하가 가계 소비와 기업 투자 증가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임.

- 특히 5월 2일 투표가 예정된 연금개혁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있음. **EMERiCs**

#### 참고문헌

- 브라질 중앙은행, 브라질 지리통계청, Oxford Analytica, Financial Times

#### 알립니다

- EMERiCs 이슈분석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(KIEP)에서 발간하고 있으며, 저작권 정책은 '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제3유형'에 따릅니다. 해당 원고에 대해 사전 동의 없이 상업 상 또는 다른 목적으로 무단 전재·변경·제3자 배포 등을 금합니다. 또한 본 원고를 인용하시거나 활용하실 경우 △출처 표기 △원본 변경 불가 등의 이용 규칙을 지켜셔야 합니다.
- 본 원고에 대한 글, 그림, 사진 등 저작권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모든 자료에 대한 저작권 책임은 저자 본인에게 있으며, 해당 원고의 의견은 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.